

就任辭

'04. 7.1(목) 14:00

-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 -

전후에 최초로 냉전이 격화됐던 한반도, 또 아직까지도 냉전의 잔재가 한반도 상공에 남아 있는 이 시점에 통일부 장관의 소임을 맡게 돼서 막중한 소명감과 책무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한번 잘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욕심을 갖습니다.

마침 남북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고 있는 시점이어서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일도 더욱 중요해지고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잘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 수년간 남북관계의 발전 속도와 깊이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피부로 느낍니다.

모두 이 자리에 계신 통일 가족 여러분의 땀방울이 배어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게 일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고 또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탁월한 능력과 열정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통일 가족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소임을 잘 수행해 오신 정세현 전임 장관님의 노고에도 마음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제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남북회담들이 올 상반기에만 해도 이십여 차례, 아마 2004년 말이 되면 기록적인 record를 생산할 것 같습니다.

남북회담을 중심으로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큰 흐름을 이루면서 성숙하고 질서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밖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 접촉의 면 그리고 공간이 넓어짐으로써 남북을 가로 막고 있던 물리적·심리적인 장벽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족의 혈맥을 잇는 철도·도로연결사업이 올 하반기에 가시적 결실을 보게 됩니다.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해서는 어제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의미있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이산가족 한을 달래는 만남도 이제 정례화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뿐 아니라 군사분야의 대화와 협력도 시작하면서 긴장완화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화 그리고 협력의 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의 현 주소입니다.

북한 핵문제도 지속적인 6자회담을 통해서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문제의 성격상 해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와 협상과정에서 쟁점을 좁혀가는 가운데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믿습니다.

북한도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민족의 염원과 그리고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통일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통일 철학을 이행하는데 노력을 더해 가십시오.

첫째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해가는 정책적 기조는 계속 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제와 안보상황을 감안한 유일한 선택입니다.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갑시다.

핵문제 해결로 얻을 수 있는 북한의 이득이 무엇이고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구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갑시다.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평화와 협력을 이 땅에 제도화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갑시다.

경제협력사업들은 남북간에 합의한 대로 착실하게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는 평화고 평화는 곧 경제라고 믿습니다.

남북간의 착실한 경제교류를 통해서 남북경제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경제공동체 기반을 형성해 나갈 때 진정한 평화가 한반도에 온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평화의 바탕위에서 상생의 남북관계가 가능할 것이고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시작된 군사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정례화하고 심화해 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북간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남북이 서로 필요로 하고 또 상호간에 이행하기

쉬운 군사분야의 agenda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갑시다.

지속적인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토대를 만들어 가도록 북측을 꾸준히 설득해 나갑시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남북 민간부문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갑시다.

이제 나쁘가이 인체가으 노이그 나브 미가브무이 코르르 통해서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나갑시다.

둘째로, 계층과 계파를 초월한 열린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해 나갑시다.

과거 냉전시기에는 남북대결 구조 속에서 통일문제는 아주 민감했습니다. 이념적 대립도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저승은 내저으 사리저그 구내에서드 평국신 크지신 기기에 레원 크기레는 년신기그 신스인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남북관계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성숙해지고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용천대북지원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들의 통일관과 대북관은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국민들의 뜻과 힘을 잘 모아나가야 합니다.

저는 지난 날 한국정치가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았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앞장서서 국민적인 합의 그리고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합의를 협력을 끌어내는데 무엇보다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평화번영구상을 국제적으로 세일즈해 나갑시다.

국제사회에도 남북관계의 변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지와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평화, 동북아번영은 남북협력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동북아 그리고 세계적인 협력의 틀 속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동북아의 번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대북한 경제협력지원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언론에 있을 때 해외로 뛰어다니면서 절감한 것들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여론이 참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고 관심과 이해를 폭넓게 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계인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또 세계인들의 축복 속에 통일이 가까워져올 것입니다.

통일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도전과 과제들은 결코 쉽고 순탄한 일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감을 갖고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간다는 자긍심을 갖고 임한다면 못 넘을 장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통일 가족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역량과 능력을 높이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의 역량을 100% , 200% 발휘할 수 있도록 밑받침하고 돕겠습니다.

조직내부의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장관으로서 제가 여러분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기해 주시고 제안해 주십시오.

대북정책에 있어서 통일부가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추동해 나갈 수 있도록 손을 맞잡고 노력합시다.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